

전남지역 교량 812개 지진 '무방비'

76%가 내진성능 없어...재정형편 탓 보강 차일피일

예산 1000억원 이상 들어...정부 지원 없인 '하세월'

신안·무안·함평군이 관리하는 지역 내 교량 전체가 내진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부 지원 없이 지자체 예산으로 내진 성능을 보강해야 하지만 재정형편 탓에 우선순위에 따라 밀리는 경우가 잦아 언제 개선될 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11일 전남도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 의원에 제출한 도·시·군별 교량 내진설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관리하는 교량(국가지원지방도·지방도, 시·군도) 1073개 중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은 812개로 75.7%에 달한다.

◇돈 없어 손 놓았나=특히 신안·무안·함평·구례·고흥·강진 지역의 경우 지자체들이 관리하는 교량 중 내진 설계를 반영한 곳은 전무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안군은 1984~2001년에 건설된 22개의 교량을 관리하고 있지만 전혀 손을 대지 못했고 함평군도 1965년 건설된 읍대면 송촌교

를 비롯, 월야면 평촌교(2004년) 등 25개 교량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했다. 수십년간 교량 여건이 개선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재정 형편을 이유로 사실상 예산 배정을 포기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무안과 구례, 고흥도 각각 16개, 21개, 36개의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례군은 1972년 건설된 문척면 옛 문척교(420m)에 대해서도 여태껏 개선하지 않는 등 21개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상태다.

◇국비 지원 절실=전남도는 9월 말 기준으로 관리하는 444개의 교량 중 154개에 대해서만 내진 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도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내진 성능을 보강한 교량이 늘어나지 않았다. 다만, 내진 성능 평가만 전년도(6개)보다 늘어난 27개 교량에 대해 실시 중이다. 전남도는 올해 17억원을 투입, 비로소 6개 교량 보강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지자체가 관리하는 821개의

■전남지역 교량 내진 설계 반영 현황

시·군·구	교량현황		
	총계	내진반영	미반영
계	1,073	261	812
전라남도	444	154	290
목포	39	6	33
여수	84	43	41
순천	44	1	43
나주	13	6	7
광양	51	13	38
담양	20	11	9
곡성	17	1	16
구례	21	-	21
고흥	36	-	36
보성	11	3	8
화순	53	9	44

교량에 대한 내진 보강에 11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교량 한 곳당 1~2억원 수준이지만 재정 형편을 들어 우선 순위에서 미뤄놓는 지자체들이 많은 점에서 언제 마무리될지는 불투명하다.

전남도 인콰에서는 지역민들이 통행하는 교량이 지진 등으로 파괴될 경우 대규

시·군·구	교량현황		
	총계	내진반영	미반영
장흥	23	1	22
강진	17	-	17
해남	18	2	16
영암	24	2	22
무안	16	-	16
함평	25	-	25
영광	24	2	22
장성	47	4	43
완도	-	-	(군도상 교량없음)
진도	24	3	21
신안	22	-	22

* 도로법에 명시된 법정도로 위에 위치한 교량 (국지도, 지방도, 시군도) (전남도 제공)

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정 형편에 따른 예산 배정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지역 모든 교량에 대한 내진 성능 보강은 오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제철 맞은 신안 왕새우 본격 출하

전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신안의 명물 왕새우(사진)가 제철을 맞아 본격적으로 출하되고 있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신안 양식장에서 가을 출하 시기를 맞아 어민들의 새우 출하가 잇따르고 있다.

45마리 기준 kg당 상품은 지난해 말 기준 2만1000원으로 비교적 높게 도매 가격이 형성됐다. 신안 왕새우는 5월 입

식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출하한다. 양식 기간이 비교적 짧고 가격도 높아 고소득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신안에서는 연 2회 이상 출하하는 이모작 양식으로 3000t을 생산해 450억원 매출을 올릴 것으로 예상된다. 신안에서

자란 왕새우는 특히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뛰어나 소비자 반응이 좋다고 신안군은 전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무안생태갯벌 유원지 착공 5년만에 준공

182억원 들여 유원리 일대 12만1914㎡ 규모 조성

'무안 생태갯벌 유원지'가 착공 5년만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내년 초부터 본격적으로 관람객을 맞는다.

11일 무안군에 따르면 해제면 유원리 일대 12만1914㎡에 추진중인 무안생태갯벌 유원지 조성사업이 최근 준공됐다.

총 사업비 182억원을 투입, 1·2단계로 나누어 진행됐다. 지난 2013년 첫삽을 뜬 1단계 사업으로 40억원을 들여 갯벌 하우스와 황도이글루 등을 조성했다. 또

2단계 사업으로 2015년 황도짚질방과 황도움막을 비롯해 낚시광장, 다목적 운모사, 캠퍼터 조성 등을 지난해 마무리했다. 방갈로 5동과 캐러반 4대 등이

갖춰진 국민여가캠핑장도 마련됐다. 군은 무안생태갯벌 유원지가 완공되

면 국내 최초 자연생태학습장으로 꾸민 생태갯벌센터와 연계해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안생태갯벌센터는 지하 1층과 지상 2층(연면적 3277㎡) 규모로, 내부 전시관과 갯벌생태공원(4만8100㎡)으로

조성됐다. 전시관은 3D입체 영상을 통해 갯벌생물들을 만날 수 있도록 100여 개의 다목적 영상관 시설을 갖췄다.

전시관 밖 갯벌생태공원은 조경수, 야생화 단지, 생태연못, 피크닉 공원으로

이뤄진 생태공원과 갯벌 및 해양생물관찰 탐방로, 갯벌 탐방로, 염생식물단지

로 구성된 생태체험장, 야외학습장 등을 갖춰 자연생태학습장으로 인기를 끌고 있다. /무안=임동현기자 idh@

함평군 내일 엑스포공원에서 크호박 선발대회

'대왕' 호박을 찾아라. 이색 콘테스트인 '큰(슈퍼) 호박 선발대회'가 오는 13일 함평엑스포공원 곤충생태학교에서 열린다.

심사 기준은 무게, 크기는 상관없고 부패하거나 상처가 있는 것은 제외된다. 출품은 당일 오후 1시 30분까지로, 심사는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품종은 동아박 등을 제외한 30kg 이상의 순수 호박이면 된다.

가장 무거운 '똥땡이(?)' 호박을 출품한

대상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상금을 준다. 우수상 2명에 각 100만원, 장려상 3명에 각 50만원, 출품상과 특별상 27명에 각 20만원을 시상한다.

선발된 호박은 2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열리는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에 전시된다.

함평군은 "전라 품목인 호박의 상품성을 홍보하고 2017 대한민국 국향대전에서 별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지난해 대회에서 '큰' 호박으로 선정된 슈퍼호박.

<함평군 제공>

신안군 시금치·대파 산업특구 지정 5년간 413억 투입 8만여㎡ 조성

신안군이 시금치·대파 산업 특구로 지정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발전시키는 데 탄력이 붙게 됐다.

11일 신안군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27일 열린 제 41차 지역특화발전 특구위원회에서 신안 시금치·대파 섬체 산업 특구 지정을 가결했다.

지역특화발전 특구는 지역 여건을 반영해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 규제를 완화

하는 등 특례를 인정하는 제도로 지난해 2004년 도입됐다.

신안은 시금치 재배 면적 1115ha, 대파 재배 면적 1252ha로 각각 전국의 18% 안팎을 차지하는 최대 주산지다. 특히 작황하는 기간이 11월~이듬해 4월까지로 농한기 유휴 노동력 투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한다고 신안군은 설명했다.

시금치·대파 섬체 산업 특구는 압해읍 동

서리 등 44필지, 8만여㎡에 조성되며 오는 2021년까지 사업비 413억원이 투입된다.

시금치와 대파의 생산·가공·유통시설을 확충하고 섬체 체험·관광을 결합, 6차 산업화해 시금치·대파·섬체를 지역 특화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게 신안군 구상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신안과 장흥 정정해역갯벌생태산업특구 등 4곳을 포함해 전국 144개 지방자치단체의 190개 지역 특

구가 운영되면서 지역주민 소득증대, 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게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이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전국 170개 지역특구의 운영성과를 평가, 광주 남구 문화교육특구(우수), 광양 매실산업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 남원 지리산웰빙 허브산업특구(이하 장려) 등 13개 우수특구를 선정했다. /신안=이상선기자 ssllee@

함평군 '정신보건복지서비스' 최우수상 수상

함평군은 10일 정신건강의 날을 맞아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지역사회 정신보

건복지서비스 정책사업 우수사례'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함평군은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과 포상금 300만원도 받았다.

함평군은 올해 초부터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정신건강복지사업 시행준비단'을

구성, 운영해 왔다.

병원 등 의료기관 퇴원·퇴소자의 지역사회 복귀 지원 사업을 펴 11명이 취업했다.

함평군 관계자는 "유관기관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해 정신질환자들의 지역사회 안착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평=황윤학기자 hwang@

광양, 근린상가

- 광양시 중동 1888-1번지 락히호텔 근처
- 6층 중 4층 전체, 210평
- 2012년 신축, 전망 좋음
- 모든업종 개발 가능
- 시세/감정가 12억
- 매매 - 7억 8000만원
- 용자 3억 3000만원 포함

비금도, 팟섬

- 신안군 비금면 죽림리 산3
- 비금도 안에 있는 단독섬, 무인도
- 임야 14010평, 보전관리지역
- 목포에서 50분 (쾌속선)
- 향후 개발시 100억 가치 있음
- 장기투자 가치 최고
- 매 14억 (현금2억+부동산과 교환 가능)

나주, ㄷ상가주택

- 나주시 공산면 금곡리 877-2
- 대지 42평, 건물 24평
- 농협/주유소 바로 앞
- 대로변 접합, 위치 좋음
- 급매 - 5200만원 (조정가)

“급 매”

콘도 / 리조트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748 도곡 관광온천지구 내, 숙박시설
- 대지 2980평, 건물 1055평
- 3개동, 객실 52개, 각 호실 개별등기
- 감정가/시세 70억, 매매 42억
- 온천지구 내 (주)바리오 화순'에 650억 투자 예정 (2018년 2월 착공)

주인직매 010-3605-5000